

불교·천주교 등 7대 종교 작가 161명 참가

월드컵기념 종교 미술제

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매년 10월 열리는 종교예술포럼 월드컵 기간동안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종교미술의 진수를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미술제만 따로 떼어 마련한 자리다.

대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주최로 올해 제 6회 짝을 맞는 미술제는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를 대표하는 미술작가 161명이 종교성이 내재된 작품을 선보인다.

기성 유명작가 보다는 중진과 신예작가들의 작품이 더 많이 전시되는 이 행사에서는 한국화와 서양화, 문인화, 서예, 판화, 조각,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종교미술을 접할 수 있다.

총 27점이 전시되는 불교작품을 살펴보면 우선 수안 스님의 '참, 좋은 인연입니다'를 비롯해 송오 스님의 '관세음보살도', 원성 스님의 '서원

의 탑' 등 한국화 8점과 영인 스님의 '은혜사 계곡', 오병욱씨의 '송림' 등 서양화 4점이 벽에 걸린다. 또 이상백씨의 '관음보살좌상', 진철문씨의 '선(禪)에 든 비행기' 등 조각작품 7점도 전시된다. 이외에도 석주 스님의 서예작품인 '세계 일화(世界一花)', 판화가 홍선웅씨의 '미황사', 이인자 불교여성개발원장의 디자인 작품 '한국의 청소년 어제, 오늘, 내일'은 눈여겨 볼만한 것들이다.

윤영의원장 양산(조계종 사회부장) 스님은 "아름다움과 조화를 추구하는 예술과 선·진리를 추구하는 종교는 서로 궁극적인 목표에 있어 다르지 않다"며 "이번 전시회를 위해 각 종교의 신앙과 거성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술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작품들을 각 교단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개막식은 19일 오후 2시

일 '은 눈여겨 볼만한 것들이다. 윤영의원장 양산(조계종 사회부장) 스님은 "아름다움과 조화를 추구하는 예술과 선·진리를 추구하는 종교는 서로 궁극적인 목표에 있어 다르지 않다"며 "이번 전시회를 위해 각 종교의 신앙과 거성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술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작품들을 각 교단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개막식은 19일 오후 2시

불교작품 '참 좋은 인연...' 등 모두 27점

한국화 8점·조각 7점·판화 '미황사' 등 불만



수안 스님의 선화 '참 좋은 인연입니다'.

월드컵을 기념해 종교미술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7대 종단에 속한 작가들이 참여하는 월드컵 기념 대한민국 종교 미술제란 이름으로 얼굴을 맞댄 이들은 7대 종교의 대표적 작가들이다. 19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라미에르에



판화가 홍선웅씨의 '미황사'.

갤러리 라미에르 3층에서 남궁진 문화부장관과 각 종교의 지도자, 출판작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한편 음악, 문학 등에 걸쳐 다양한 예술 행사를 펼치는 대한민국 종교예술포럼은 10월 14일부터 예술의 전당에서 시작된다. 02-766-4776

'동승'을 주제로 한 토우(土偶) 전시회가 월드컵 기간 동안 열린다.

생활도자기와 토우 작업 등을 주로 해온 허경혜(50)씨는 '산사 이야기'라는 제목의 토우전을 오는 11~20일까지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마련한다.

동승의 출가부터 율령과 차담, 공부, 기도 등의 산사 생활을 형상화한 이번 전시회에는 모두 108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섭씨 1200℃의 가마에서 구워낸 허씨의 작품들은 경남 산청의 거친흙인 '산청토'를 재료로 동승의 모습과 표정을 해학적으로 짙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릎을 꿇은채로 손 들고 뉘서고 있는 동승을 표현한 작품에서는 애초로 음을 넣어 천진난만한 모습에 환한 웃음마저 터진다.



동승들의 모습을 표현한 토우 작가 허경혜씨의 '동승 토우'.

'동승' 주제 토우展 '산사이야기' 절에서의 일상생활 형상화 108점 선보



영상이 돌보이는 영화 '동승'에서 동승도넨이 물을 나르고 있다.

9월 개봉 앞둔 영화 '동승' 국제영화제서 초청 잇달아

최근 후반 마무리 작업을 완료해 9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동승'이 국제영화제 초청이 줄을 잇고 있다. 현재 영화 '동승'은 7일부터 열리는 상하이 영화제를 비롯해

8월 캐나다 몬트리올 영화제 월드 시네마 부문, 러시아 모스크바, 스위스 로카르노 등 국제영화제에 초청됐다. 또 베니스와 카를로비 바리, 산 세바스티안 등 주요 영화제에 출품 예정이며, 독일과 스페인의 국영방송, 일본 NHK에서도 관련 구매를 이미 요청해 놓은 상태다.

'동승'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동승(도넨) 김태진 분과 젊은 스님 정심(김민교 분)의 눈에 비춰진 속세의 모습을 조명한 영화. 특히 '동승'은 불도의 공간인 사찰을 비롯해 한국의 자연을 철저히 자연공예 의해 촬영해 영상이기 빼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경중 감독은 "동승의 잇달은 국제영화제 초청은 칸 영화제에서 임권택 감독이 감독상을 수상해 우리나라 영화의 진가가 세계에 널리 알려진 상태여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서울 조계사를 비롯해 부산, 대전 등 일부 사찰 시사회에서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은 바 있어 좋은 소식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신감을 표명했다.

죽구는 각본없는 드라마다. 이에 비해 영화는 치밀한 각본과 구성을 필요로 하는 장르이다. 죽구라는 매개체를 통해 감동과 웃음으로 인생을 얘기하는 죽구영화. 월드컵에서 첫 승을 따낸 한국대표팀의 선전으로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다. 하지만 삶은 축제만으로 계속될 수 없다. 월드컵 경기사이, 죽구를 소재로 한 영화를 감상해 보는 것도 색다른 묘미가 있을 것 같다.

1981년 존 휴스턴 감독이 만들고 축구황제 펠레가 주인공으로 출연한 '승리의 탈출'은 후미늬즘을 매개로 축구와 영화를 교묘하게 접합한 수작으로 꼽힌다. 2차대전 중 독일 포로수용소에서 축구 경기도

'승리의 탈출' '더 컵' '소림 축구' 등 월드컵중 축구영화 감상 색다른 묘미

중 탈출을 시도하려는 포로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1998년에 제작된 부탄 영화 '더 컵'은 히말라야 오지의 한적한 사원에 붙어있는 월드컵 열기를 서양



소림무공을 위한 퇴역자들이 축구팀을 결성해 이전의 내공을 다시 회복한다는 흥행영화 '소림축구'.

축구 선수들에게 열광한 어린 수도승을 등장시켜 코믹하게 그려냈다. 국내에서도 재소자들이 감형, 형 집행정지 등을 꿈꾸며 축구에 열중한다는 내용의 '고도소 월드컵' 역시 죽구를 소재로 다뤘다.

지난달 17일 개봉한 '소림축구' 역시 침담 특수요파를 동원해 무협과 축구의 재미를 한곳에 모은 흥행영화다.

2001년 12월 YTN 모범업체 선정 방영!!

세계 최대 지장보살 성지 중부권 최대의 미타사 가족납골공원

즉시안치가 가능 (토목공사 100%완료)

백룡이 여의주를 안은 백룡회주형(白龍獻珠形) 명당!

뒤로는 가섭산의 오색비단장막이 동에는 좌청룡 서에는 우백호가 일드려 지켜주고 앞에는 탁트인 입수에 여의주가 뚜렷해 옛부터 알려진 최고의 명당으로 현세는 부귀다자(腐貴多子)하고 내세는 지장보살의 품안에서 영원히 안식 할 수 있는 제일의 성지입니다.

장묘법의 개정에 따라 더 이상 매장요는 영원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매년 정기적인 합동제와 상시독경을 올립니다. 음력 입춘, 사월초파일, 칠월칠석, 백중, 동지날에 스님들이 직접 영혼들을 위해 합동제를 올려 왕생극락의 길로 안내하며 상시 독경으로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빌어 영가들의 천도를 빌어드립니다.

육도(六道)의 배지로 왕생극락을 빌어드립니다.

납골의 배치를 육도에 맞추어 인치침으로써 왕생극락으로 가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에 유명관광지가 소재합니다.

중부 및 내륙, 중앙고속도로와 청주 공항에 인접하여 서울에서 1시간여 거리에 있으며 충주호, 단양팔경, 월악산, 수안보온천 등의 관광지가 인근에 있습니다.



미타사법당



기 본 영 모 도 일: A형 - 영탑형 높 이: 2000 인치수: 10점 배대적: 1150x1250x150



고 급 영 모 도 일: A형 - 부도형 높 이: 2000 인치수: 12점 배대적: 1200x1400x180

- 불자시영: 대한불교 조계종 미타사
신 청 금: 10만원 선착순
신 청 계 좌: 농림 327-01-137435
예 금 주: 대한불교 조계종 미타사 (미계약시 신청금 전액즉시인출)

분 양 문 의 02)720-7007 02)419-1700 FAX 02)419-6670 Homepage: www.mitasa.co.kr

